

1과목 : 국어

1.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장단과 억양이 있다.
- ② 국어에서 장단의 문제는 모음과 자음 모두에 해당된다.
- ③ 국어의 비분절 음운은 자음, 모음처럼 정확히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없지만 말소리 요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.
- ④ 국어에서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 나타나는데, 특이하게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장음이 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.

2.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㉠ 당신은 누구시오?
- ㉡ 당신,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?
- ㉢ 뭐? 당신? 누구한테 당신이매?
- ㉣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.

- ① ㉠에서 '당신'은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.
- ② ㉡에서 '당신'은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.
- ③ ㉢에서 '당신'은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.
- ④ ㉣에서 '당신'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.

3.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'우리나라, 우리글, 우리말'은 '우리 동네, 우리 학교, 우리 집'처럼 구(句)로 보아야 한다.
- ② 접사와 어근,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(合成語)라 한다.
- ③ '앞뒤, 손수건, 춘추(春秋)'와 같이 어근이 대등하게 이루어진 것을 대등 합성어라 한다.
- ④ '뉘엿, 부슬비, 뉘푸르다'와 같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 한다.

4. 다음 밑줄 친 성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?

- ㉠ 영선이가 참 아름답다.
- ㉡ 과연 영선이는 똑똑하구나.
- ㉢ 영선이는 얼마와 닮았다.
- ㉣ 그러나 영선이는 역경을 이겨냈다.

- ① ㉠과 ㉡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내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다.
- ② ㉢과 ㉣의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다.
- ③ ㉢과 ㉣의 밑줄 친 부분은 앞뒤를 연결해 주는 접속 부사어이다.
- ④ ㉠부터 ㉣까지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부사어이다.

5.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그의 논문이 유명 학회지에 개재(介在)되었다.
- ② 경치가 좋은 곳을 관광지로 계발(啓發)하려 한다.
- ③ 무더위로 최대 전력 수요 경신(更新)이 계속되고 있다.

④ 그 회사는 어음을 결재(決裁)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되었다.

6. 다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㉠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.
- ㉡ 아버지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팔았다.
- ㉢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.
- ㉣ 철미와 영선이는 결혼했다.

- ① ㉠은 '용감한'이 '그'를 꾸미는지, '그의 아버지'를 꾸미는지 불분명하다.
- ② ㉡은 '어머니가 그린 초상화'인지, '어머니를 그린 초상화'인지, '어머니가 소유한 초상화'인지 불분명하다.
- ③ ㉢은 '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는 학생'인지, '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'인지 불분명하다.
- ④ ㉣은 '철미'가 '영선'이와 결혼했다는 의미로 명확한 의미의 문장이다.

7. 다음 띄어쓰기 규정의 '원칙'에 맞게 쓴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희망의√불씨가√꺼져간다.
- ② 한국대학교√사범대학√최치원√교수
- ③ 이천십팔√년√삼√월√이십사√일√제일√차√공무원√시험
- ④ 제발√여기에서만이라도√집에서√처럼√못√되게√굴지√않았으면√좋겠다.

8. 다음 중 표준어끼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?(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,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
- ① 수캉아지 - 수탕나귀 - 수평아리
- ② 황소 - 장끼 - 똥(생일)
- ③ 샅팬이 - 사글세 - 꼬나불
- ④ 광충광충 - 오뎅이 - 아지랑이

9. 다음 문장 부호의 쓰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“나는 너를…” 하고 뒤돌아섰다.
- ② 그녀의 50세 나이(年歲)에 사랑의 꽃을 피웠다.
- ③ '환경 보호 - 숲 가꾸기 -'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.
- ④ 운동주의 유고 시집인 《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》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.

10. 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압구정-'Apgujeong'-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.
- ② 속리산-'Songni-san'-자연 지물명, 문화재명 등은 불임표를 붙여 쓴다.
- ③ 한복남-'Han Bongnam'-인명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한다.
- ④ 집현전-'Jipyeonjeon'-'ㄱ, ㄷ, ㅂ, ㅈ'이 'ㅎ'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나는 경우 거센소리로 적는다.

아래는 공통 지문입니다. 공통지문은 별도 표기 합니다.

제6장 양반춤

말뚝이 (범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.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며 등장)

양반 삼 형제 (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, ㉠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. 양반 삼 형제 말미는 생님[生員], 둘째는 서방님[書房], 끝은 도련님[道連]이다.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. 도련님은 남색 패지에 복건을 썼다.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(생님은 언청이 두 줄, 서방님은 한 줄이다.)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,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.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, 형들과 동작을 같아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.)

말뚝이 (가운데쯤에 나와서) 쉬미, (음악과 춤 멈춘다.)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(老論), 소론(少論), 호조(戶曹), 병조(兵曹), 옥당(玉堂)을 다 지내고 삼정승(三政丞), 육판서(六判書)를 다 지낸 퇴로 재상(退老宰相)으로 계신 양반인 줄 마지 마시오 ㉡개잘랑이라는 '양'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'반'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미오.

양반들 야아, 미놈, 뭐야아

말뚝이 아, 미 양반들, 머찌 듣는지 모르갔소, 노론, 소론, 호조, 병조,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,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미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.

양반들 (합창) 미 생원이라네, (굿거리장단으로 ㉢모두 춤을 춘다.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.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.)

11.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 ① ㉠: 현대 연극의 '막'과 유사하지만 각 '과장'은 독립적이다.
 - ② ㉡: 양반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.
 - ③ ㉢: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.
 - ④ ㉣: 말뚝이를 통해 유발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.
12.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(11번 공통지문 문제)
- ① 경상도 안동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면극의 일종이다.
 - ② '양반의 위엄→말뚝이의 조롱→양반의 호통→말뚝이의 변명→양반의 안심'의 재담 구조를 보인다.
 - ③ 등장인물은 공연 상황에 따라 대사를 바꾸어 표현하지

못한다.

- ④ 말뚝이는 무능한 지배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.

아래는 공통 지문입니다. 공통지문은 별도 표기 합니다.

德(덕)이란 곰비에 받쥌고
福(복)이란 림비에 받쥌고
德(덕)이여 福(복)이라 호놀
㉠나스라 오소이다
아으 勳勳(동동)다리

正月(정월)스 나릿므른
아으 어저 죽저 호논터
누릿 가몬터 나곤
㉡몸하 호놀로 널셔
아으 勳勳(동동)다리

二月(이월)스 보로매
아으 ㉢노피 현
燈(등)스를 다호라
萬人(만인) 비취실 즈시샷다
아으 勳勳(동동)다리

三月(삼월) 나며 開(개)호
아으 滿春(만춘) ㉣돌깃고지여
늑빅 브돌 즈술
디너 나샷다
아으 勳勳(동동)다리

13.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 ① ㉠: '나중에 오십시오.'라는 뜻이다.
 - ② ㉡: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낸다.
 - ③ ㉢: 2월의 세시 풍속인 '연등제'와 관계된다.
 - ④ ㉣: 임의 수려한 외모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였다.
14.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13번 공통지문 문제)
- ①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월령체 형식에 맞추어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.
 - ② 고려 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정착되어 「악장가사」에 전한다.
 - ③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켰다.
 - ④ 1연은 서사(序詞)로서 송축(頌祝)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, 이는 민간의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.
15.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가난한 내가
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
오늘 밤은 폭폭 눈이 내린다

나타샤를 사랑은 하고
눈은 폭폭 날리고
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㉠소주(燒酒)를 마신다
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
나타샤와 나는
눈이 폭폭 쌓이는 밤 ㉡흰 당나귀 타고
㉢산골로 가자 출출이 무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
리에 살자

눈은 폭폭 나리고
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
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
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
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
㉣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

눈은 폭폭 나리고
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
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양응양
울을 것이다

- ① ㉠: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단이다.
② ㉡: '눈', '나타샤' 등과 함께 현실적 괴로움을 상징한다.
③ ㉢: 나타샤와 함께 살고 싶은 이상적 공간이다.
④ ㉣: 벗어나고자 하는 세속적 공간을 의미한다.

16.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
머서 멀거니 앉았거나,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
한 웃음이나 '헤헤' 하고 심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
가엾기도 하고,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
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.

'미게 산다는 꼴인가? 모두 돼져 버려라'

찾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.

'무덤이대 구더기가 쫓는 무덤이대'

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
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. 난로는 꽤 달았다.
땀의 허 같은 빨간 불길의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
다보인다. 찾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
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. 우중충한 남쪽불은 웅크
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
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.
나는 한번 휘 둘러다 보며,

'공동묘지다!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
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 하는 가혹한 백성들이
다!'

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.

'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러운 데
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인가?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
기가 득시글득시글하는 무덤 속이다. 모두가 구더
기다. 너도 구더기, 나도 구더기다. 그 속에서도 진
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르지 않고 진
행되겠지!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네
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댈 것이다.
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의 날날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
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네 코로 들어
갔다. 네나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(未久)에 또 구
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. 메엿
돼져라 웅도 썩도 없이 스러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
해 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 버리든지 양단간에
끝짐이 나고 보면 그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
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.'

- ① 1922년 「신생활」에 발표될 당시 작품 제목은 「묘지(墓
地)」였다.
② 주인공이 도쿄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도쿄로 돌아가는
여로형 소설이다.
③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
으로 전개되고 있다.
④ 현실 개선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
기력한 당대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다.

아래는 공통 지문입니다. 공통지문은 별도 표기 합
니다.

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. 이때 앞서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, 나는 그것을 알고도 머물머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,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.

그런데 수리하고 보니,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, 추녀, 기둥,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,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.

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.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.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㉠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,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. 이뿐만 아니라, 나라의 ㉡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. 모든 일에 있어서,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㉢개혁하지 않다가,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, 곧 불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.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?

17. 이 작품의 주제를 한자 성어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興盡悲來 ② 捲土重來
③ 愚公移山 ④ 渴而穿井

18.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모두 적절한 것은?
(순서대로 ㉠, ㉡, ㉢)(17번 공통지문 문제)

- ① 敗亡, 政事, 改革 ② 敗亡, 正使, 開革
③ 敗忙, 政事, 改革 ④ 敗忙, 正使, 開革

아래는 공통 지문입니다. 공통지문은 별도 표기 합니다.

말을 맞지 못하여서 구름이 걸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,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남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황(驚惶)하여 하더니,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니, 향로(香爐)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,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.

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날 염주(念珠)가 손목에 걸렸고,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 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, 다시 대승상의 위익(威翼) 아니니, 정신이 활활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(蓮場)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,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(受責)하며 풍도(豐都)로 가고, 인세(人世)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며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, 출장입상(出將入相)하며 공명신퇴(功名身退)하고, 양 공주와 육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. 마음에 이 필연(必然) 사부가 나의 염려(念慮)를 그릇함을 알고,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(情欲)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.

19. 이 작품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것은?

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 두냐.

이시라 하더면 가라마는 제 구닥여

① 보내고 그리는 情(정)은 나도 몰라 호노라.

②

五百年(오백 년) 도읍지를 匹馬(필마)로 도라드니,
山川(산천)은 依舊(의구)호되 人傑(인걸)은 간 디 업다.
어즈버 太平烟月(태평 연월)이 썸이런가 호노라.

③

首陽山(수양산) 바라보며 夷齊(이제)를 恨(한) 호노라.
주려 주글진들 採薇(채미)도 호는것가.
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괴 뉘 싸헤 닛디.

④

三冬(삼동)에 뵈웁 님고 巖穴(암혈)에 눈비 마자
구름 켜 벗뉘도 췌적이 업건마는,
西山(서산)에 히지다 호니 눈물겨워 호노라.

20.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19번 공통지문 문제)

- ① '국민 문학론'과 관련된 몽자류 소설이다.
② '현실→꿈→현실'의 환몽 구조 소설이다.
③ 조신 설화가 이 소설의 근원 설화이다.
④ 작품 속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 시대이다.

전자문제집 CBT PC 버전 : www.comcbt.com
 전자문제집 CBT 모바일 버전 : m.comcbt.com
 기출문제 및 해설집 다운로드 : www.comcbt.com/x

전자문제집 CBT란?

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
 모의고사, 오답 노트,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
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
 니다.

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
 교사용/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.

오답 및 오탈자가 수정된 최신 자료와 해설은 전자문제집 CBT
 에서 확인하세요.

1	2	3	4	5	6	7	8	9	10
②	④	④	④	③	④	③	①	②	①
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④	②	①	②	②	③	④	①	②	④